

# 어느 광대의 넋두리

김명곤

만일 누가 날더러 “무엇 하는 사람이요?”하고 묻는다면 나는 한참 머리를 골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바보 선언』에서 절름발이 똥칠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못생긴 영화배우쯤으로 나를 생각한다. 『장사의 꿈』에서 1인 10역을 해냈던 연극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80년까지 화제의 한글 전용 잡지였던 『뿌리깊은 나무』사의 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1년 동안 독일어를 가르쳤던 배화여고의 제자나 학부형들은 나를 독어선생님이라 생각할 것이고, 영화 『서편제』를 보신 분들은 나를 판소리에 미친 국악인으로 알 것이다. 그 모두가 내가 거쳤거나 했던 일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날더러 “무엇 하는 사람이요?”하고 누가 묻는다면 마침내 ‘광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조용했던 문학 소년이 느닷없이 연극이네, 영화네, 판소리네 하면서 시끄럽게 살고 있는 나를 그보다 더 적절히 표현해 줄 단어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문학의 열병에 시달리던 문학 지망생이었고, 가곡이나 이태리 민요나 오페라 아리아에 심취한 음악 지망생이었다. 돈 많이 드는 음악대학은 엄두도 못낼 처지였던지라 독문학을 해보겠다고 서울사대 독어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학을 하겠다는 꿈은 대학 2학년 때 연극반 친구를 따라 서울사대 연극반 연습실에 우연히 들른 뒤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마침 다른 일로 나오지 못한 배우의 대사를 대신 읽어준 게 탈이 되어 나는 연

출 선배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난생 처음 배우라는 걸 하게 됐다.

그런데 연극 연습을 하는 동안 나는 연극의 매력에 낮이 빠져나가는 듯한 체험을 했다. 아쉽게도 『선우교수댁』이라는 그 연극은 교내 시위 문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개막 첫날 전투경찰들이 들이닥쳐 무대를 철거하는 불상사로 불발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나의 연극 사랑에 불을 지른 격이 됐다.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온몸으로 달려드는 성격이었던 탓에 전공인 독어는 점점 멀어져갔고 나중에는 때려치우다시피 했으니, 다른 사람 눈에는 착실한 모범생(?)이 문제야로 전락해 가는 모습으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70년대 초반은 장발과 청바지와 통기타와 팝송과 포크송이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 역시 그런 것들을 좋아하던 대학생이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북을 치는 고수와 소리꾼이 관객들을 휘어잡는데, 그것은 또 뜻밖의 충격이었다. 너무도 단순하면서도 원초적인 서사 형식, 인간의 성악적 한계에 도전하는 고도의 기량, 비속어와 음담패설부터 최고의 한시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우리말 구사의 문학성 등등. 나는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다. 수많은 예술을 기웃거렸어도 찾지 못했던 것이 그 동안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우리 전통 속에 있었다. 나는 자나깨나 판소리에 빠져 지내다가 대학 4학년 때 명창 박초월 선생님을 찾아가 소리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거대하게 펼쳐지는 판소리의 세계 앞에서 당황하고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침묵했다. 나는 몇 년 동안 그 속을 파고들었고, 그러는 동안 나의 음악에 대한 감수성과 사소한 생활의 정서마저 바뀌어갔다. 그러자 비로소 조금은 한국 사람다워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지난 시대의 전통만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삶에 맞춰나가야 하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고통과 갈등과 희망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가 큰 과제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뿌리깊은 나무』 기자와 배화여고 교사를 거치면서 교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극단 ‘상황’에서 『아벨만 이야기』, 『뼈꼭 뼈 뼈꼭』 등의 작품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극단 관계자 몇 분이 남민전 사건과 연루되는 통에 극단 ‘상황’은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대로서의 꿈은 배가 고플

수록,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커나가기만 했다.

나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연극에 뛰어 들었다. 문화운동의 초기 열풍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때라 탈춤, 민요, 풍물, 굿, 판소리 등 전통이 공연되는 곳이면 걸신들런 사람처럼 부지런히 쫓아 다녔고, 새로운 예술운동의 다양한 시도들에 직접이건 간접이건 열심히 참여했다. 김지하, 황석영 선배를 필두로 문화운동 1세대에 속하는 채희완, 임진택, 김민기, 김영동, 이상우, 김석만 등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예술가들과 대학 연극반이나 탈춤반 출신이던 수많은 광대들과 함께 탈패 '한두레' 나 극단 '연우무대'의 연습실에 모여서 밤을 새우며 연습을 했다.

황해도 장산곶에서 전해오는 신화를 바탕으로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곳곳하게 살아 온 민중들의 기개를 그린 『장산곶매』, 건강한 시골 청년이 돈 벌겠다고 상경해 서울을 떠돌다가 결국은 파멸하고 마는 『상사의 꿈』,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민달팽이』, 금수강산이 공해산업으로 찌들어 가자 주민들의 단결로 공해산업을 쫓아내는 『나의 살던 고향은』, 동학 농민운동을 다룬 『멈춰선 저 상여는 상주마저 없다더냐』 등에서 배우로, 공동창작자로, 연출로 참여를 했다. 검열과 공연 중지, 동료들의 수배와 도피 등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마치 독립 운동하듯이 한 작품 한 작품이 피를 말려가며 공연되던 시기였다. 그 뒤 사회성 있는 영화를 추구하고 마당극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던 이장호 감독의 영화 『바보선언』에서는 절름발이 거지 퐁칠이 역을 맡아 시대상황을 비틀고 풍자하는 괴상한 연기도 해 봤고, 이후 연극이건 영화건 내 생각을 담아낼 수 있겠다 싶으면 가리지 않고 출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대본도 쓰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86년 6월에 극단 '아리랑'을 창단했다. 극단 이름을 '아리랑'으로 한 것은 민족문제의 핵심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로 표출해내겠다는 의미에서였다. 극단 아리랑이 창단된 얼마 뒤에 <전국 민족극운동협의회>가 창립되고, 이어서 <민족예술인총연합>도 창립됐다. 또 수많은 민족예술 후원자들에게서 십시일반 걷은 돈으로 '예술극장 한마당'이라는 조그마한 소극장도 만들어졌다. 전보다는 규제가 완화되고 민주화의 열기가 예술계에도 불어닥쳐 전국에서 활

동하고 있던 수많은 광대들에게 연대의 기쁨과 희망이 넘실대던 시절이었다. 나는 창단 작품으로 『아리랑』을 무대에 올렸고, 그 뒤 민중의 저항과 혁명의 문제를 동학혁명을 통해 다룬 『갑오세 가보세』를 연이어 올렸다. 그 뒤에는 판소리 『수궁가』를 우리 시대에 맞는 가사로 바꾼 『금수궁가』를 공연해서 글자 하나, 음 하나만 틀려도 얼굴을 찡그리고 수십 번 반복하게 하시며 소리를 전수해 주셨던 돌아가신 박초월 스승님께 반란도 도모했다.

89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광대들이 모여 공동창작으로 만든 『아시아의 외침』이란 작품에 참여해 6개월 동안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유랑하며 설 새 없이 공연과 워크숍으로 지새우다 돌아왔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강행군이었지만 세계 예술계의 흐름과 동향에 대해 안목을 넓히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 뒤 아리랑 극단에서 『점아 점아 콩점아』,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걱정만리』 등을 올리는 한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명자 아끼꼬 쏘냐』 등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그러다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뒤 『태백산맥』 등의 영화와 연극 작업을 거쳐 국립극장장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책임운영기관으로 변모한 극장의 경영 일선에서 일해 오며 나는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감성과 관리자로서의 합리적 경영을 접목시키느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이 일은 나에게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국립극장은 내가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전통예술과 민중예술의 현대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다. 전통은 결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다. 전통 속에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닌, 살아 숨쉬고 성장하며 끊임없이 새끼를 쳐나가야 하는 생명체다. 살아 숨쉬고 커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 이어야 할 것이고 이웃은 일본이건, 중국이건, 소련이건, 아프리카 어느 나라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 이어야 할 것이다. 나는 살아 숨쉬고 커나가며 이웃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영원한 광대가 되고 싶다. ■

김명곤 arang@mct.go.kr | 국립극장장, 예술인.